

미국 시간강사 제도의 현실에 대한 이해

남서울대학교 교수
이석열



1. 서론

미국의 많은 대학들은 줄어드는 운영비, 감소하는 기부금, 인상할 수밖에 없는 등록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에 미국 대학들은 인플레이션과 평균 가정 수입의 증가 수준을 넘어서는 고등교육비의 증가로 인해 소위 책무성(accountability)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고등교육의 중요성은 갈수록 중요시되고 있으며, 대학의 안정성과 지식기반을 제공하는 지속적인 힘은 바로 교수진들에게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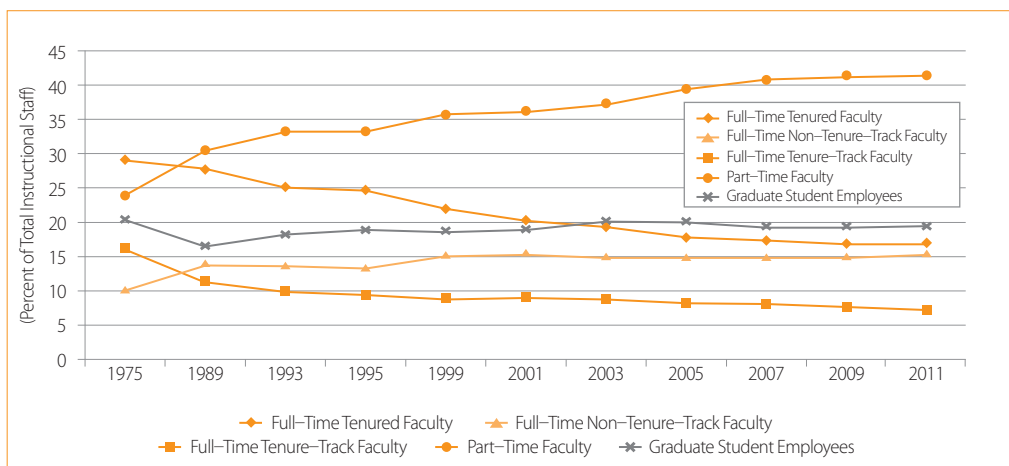
그러나 대학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면 과연 그들은 전임교원(full time faculty)을 임용할 것인가? 대부분의 경우에 그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이다. 대신 대학들은 기간제의 비전임교원을 임용할 것이고, 실제 미국에서 시간강사들(adjuncts)은 교수요원으로

로서 중요한 부분이며 큰 비중을 차지한다. 미국의 시간강사 비율은 1970년도에 고등교육 교수진의 20%를 차지했지만 오늘날에는 그 비율이 거의 50%로 증가했다. 이들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고,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로 적어도 중상층에 위치해야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가난의 끝에서 살고 있다. 학생들의 등록금은 계속 증가하는 반면, 100만이 넘는 시간강사들은 낮은 수준의 근무 환경속에서 대학 강의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대학의 성향은 정규 교수들보다 시간강사들을 선호한다.

지난 2013년 11월, House Committee on Education과 The Workforce Democrats는 미국 전역의 시간강사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eForum에 초대했다. eForum은 시간강사의 근무 조건을 조사하고, 이 조건이 시간강사들의 생활비를 버는 능력과 그들의 성공적인 경력 쌓기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또한 이 조건이 학생들과 학생들의 학업적 목표를 성취하는 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 조사했다. 6주 동안 eForum은 845개의 응답을 얻었다. 설문조사는 전체 50개의 주 중에서 41개의 주에서 얻었고 다양한 경력의 시간강사들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이 글은 그 조사에서 얻은 응답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II. 안정적인 정규직 임용에 대한 어두운 전망

모든 유형의 대학에서 시간강사(contingent professor)의 수는 늘어나고 있다. 1969년에는 시간제로 일하는 교수의 비율이 겨우 18.5%였다. 하지만 그 비율은 점점 늘어나서 1975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300%가 증가했다. 미국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에 따르면, 2년제와 4년제 대학에서 ‘contingent faculty’(시간강사, 종신계약을 하지 않은 정규 교수, 조교들)의 비율은 75.5% 이다.



* Notes : Figures for 2011 are estimated. Figures from 2005 have been corrected from those published in 2012. Figures are for degree-granting institutions only, but the precise category of institutions included has changed over time. Graduate student employee figure for 1975 is from 1976. Percentages may not add to 100 due to rounding.
* Source : US Department of Education, IPEDS Fall Staff Survey.

그림 1 | Trends in Instructional Staff Employment Status, 1975-2011 All Institutions, National Totals

해외고등교육동향

[그림 1]에서 보면 시간제(part-time) 강사의 급격하고 꾸준한 증가는 결국 시간강사에 대한 뚜렷한 선호도를 알 수 있으며, 이 선호도가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줄어들게 만들고 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응답자들은 정년보장 계약을 맺거나 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시간강사들(adjuncts faculty)은 문자 그대로 부속적인(adjunct) 교수들이 아니며 대부분의 시간강사들이 정규 교수 못지않은 가르침에 대한 열정을 보이고 있다.

응답자들 중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시간강사로 일했는지 알아본 결과, 대답은 1학기에서 35년까지 다양했다. 평균은 10년이었고, 중간 값은 4년이었다. 대다수가 시간강사로 일한 기간 외에, 다른 기관에서 가르치는 경험을 했거나, 그들의 전문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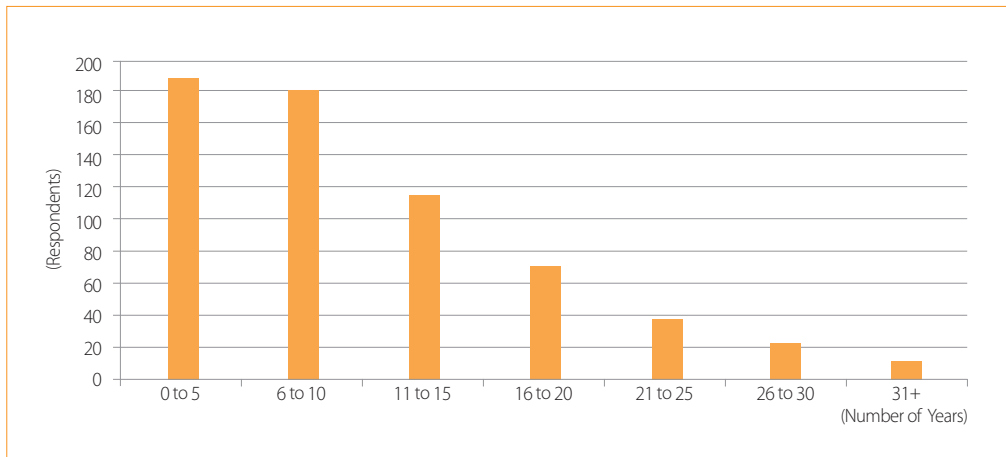


그림 2 | Years Taught As a Contingent Faculty Member

응답자들 중 다수가 석사학위 또는 더 높은 학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50%가 넘는 비율이 박사학위, 그리고 30%가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었다. 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2%의 사람들은 상당한 실질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최종 학위에 해당하는 공부를 했다고 대답했다.

시간강사가 된다는 것은 직업 안정성이 없다는 뜻이다. 대부분 '가장 마지막에 확정되고 가장 먼저 바뀌는' 형태로 학기 마다 계약을 한다. 264명의 응답자 중에, 95%가 직업 안정성을 전혀 못 느끼거나 그들이 다음 학기에도 수업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대답했다.

많은 시간강사들은 전임교원이 되기 위해서 일시적인 직업으로 시간강의를 하기를 바란다. 2010년 CAW조사에 따르면, 80%가 넘는 시간강사들이 3년 이상 시간강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임교원으로 가르치고 싶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강사들은 전임교원 자격을 갖는 것이 어렵다고 말한다.

III. 성과급으로 받는 낮은 임금

일반적으로 시간강사들은 강의를 준비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이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강의시수에 따른 고정된 보상을 받는다. Coalition on the Academic Workforce(CAW)는 보통 3학점 강의에 대한 평균 급여는 2,700\$라고 밝혔다. 그러므로 시간강사들의 연 수입은 온전히 그들이 가르치는 강의 시수에 달려 있다. 실제 시간강사들은 수업을 준비하고, 채점하고, 웹사이트를 만드는 등 매일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하고 있다. 다음은 160명의 응답자들로부터 3학점당 급여에 대한 사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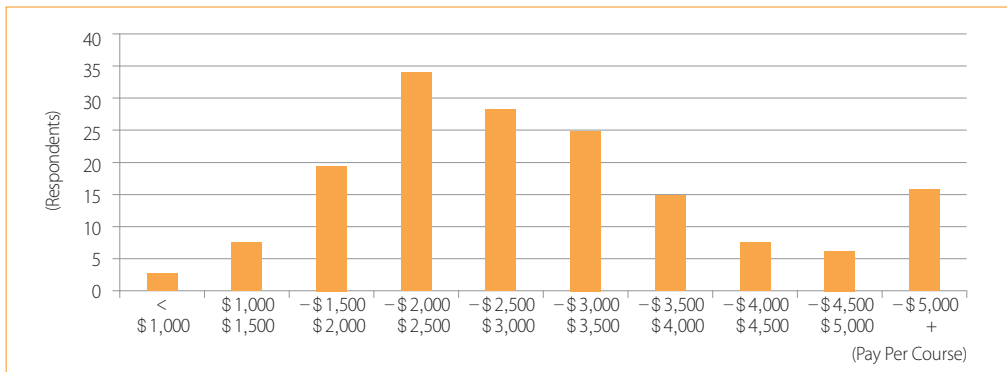


그림 3 | Pay Per Three-Credit Course

설문 응답자들은 그들의 연 수입을 5,000달러~55,000달러 사이라고 밝혔다. 그들 중 다수가 그들의 수입이 15,000달러에서 20,000달러라고 대답했다. 이 수준은 세 가족의 빈곤수준 하한선(19,530달러), 혹은 네 가족의 빈곤수준 하한선(23,550달러)에 해당된다. 실제 시간강사의 연 수입 평균은 24,926달러(중앙값 22,041달러)인 반면에 전임교원의 연 수입 중앙값은 47,500달러이다. 이 정도 수준의 수입을 벌려면, 시간강사 한 명이 1년에 17개의 강의를 해야만 가능하다. 대다수의 응답자들의 그들 배우자의 수입이 없으면 계속 강의를 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온라인 대학에서 일하는 한 응답자는, 그의 급여를 학생의 등록금에 비교해본 결과, 수업의 하나에 565달러를 지불하는 학생들이 한 수업에 20명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시간강사들은 대학이 요구하는 일을 모두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대학 수입의 4%밖에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 응답자는 이렇게 덧붙였다. “나는 대학의 높은 등록금이 시간강사들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미국의 시간강사(Contingent faculty)들은 경제적 이유 때문에 학문적 직업 외에도 다른 일을 했다. 한 응답자는 강의경력도 20년임에도 불구하고 강의만으로 충분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없어서 강의 외에도 4~5개의 아르바이트를 하곤 했다고 응답했다. 교수들은 수업을 위해 다방면에 걸쳐 준비를 하지만 시간강사들은 이 준비 시간을 위한 급여를 받지 못한다. 그럼에도 한 달 혹은 더 긴 시간 동안의 사려 깊은 수업 준

해외고등교육동향

비를 했더라도 수업이 갑자기 폐강되었을 경우 개강 일주일 전에 갑자기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 통지의 부재는 시간강사들을 경제적인 혼란으로 빠뜨린다. 더욱이 연방 법에 대한 몇몇 주들의 해석은 학기 사이에 해고된 시간강사들의 실업 보험 적용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최근 시간강사들은 노동조합을 형성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2010년 CAW에 따르면, 조합에 속한 시간강사들은 그렇지 않은 강사들보다 25% 더 많은 수입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들은 조합에 속한 시간강사들이 직업적 안정성을 더 많이 보장받는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조합형성은 아직까지 고등교육기관들에게 보편적으로 환영 받지 못하고 있다. 조지타운 대학은 미션 스쿨의 사회적 정의로서 시간강사 조합을 인정한다고 한 반면, Duquesne 대학은 마찬가지로 미션스쿨이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시간강사들의 낮은 급여와 혜택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종종 수년간의 강의 경험과 실질 경험과 함께 인상적인 교육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시간강사들은 학생들을 실제 세계로 연결해 줄 필수 불가결한 존재이다. 그럼에도 시간강사들은 미국에서 식량 보조를 받거나 정부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고학력자들이다.

III. 대학간 이동의 어려움과 소요시간

많은 eForum의 응답자들은 그들의 힘든 환경에 대해 묘사했다. 시간강사들은 강의한 학점만큼 수입을 얻기 때문에, 그들은 2개 이상의 학교에서 보통 3학점 과목을 2개 이상씩 강의를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물론 이들은 매 학기마다 그들에게 고정되어 배정되는 강의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대부분 그들은 매 학기마다 새로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강의를 예상치 못하게 바뀔 수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불안정한 강의 학점은 시간강사들에게 금전적인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고 했다. 다음은 한 학기에 3학점 과목을 몇 개 강의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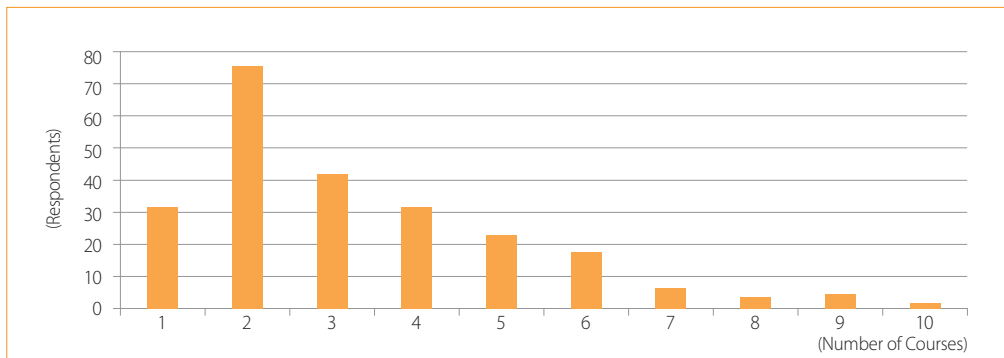


그림 4 | Number of Three-Credit Courses Taught Per Semester

미국의 시간강사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강의를 하기 위한 이동 시간이었다. 응답자들은 수업 간의 이동시간이 시간소모가 큰 일이라고 대답했다. 실제로 한 응답자는 강의를 위해서 두 개의 직장을 오가며 하루에 거의 100마일을 이동해야 했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시간강사들이 수업시간에만 일을 한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시간강사들은 수업 외의 많은 시간을 강의를 위해 사용하고 있었다.

나는 developmental reading을 가르치기 때문에 매 시간마다 채점해야 하는 숙제를 낸다. 이 말은 내가 하루에 적어도 다섯 시간을 채점하는 데 쓴다는 말이다. 또한 나는 수업 준비도 해야 한다. 나는 연구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남편의 불만을 사는 종이더미에 둘러싸여 있다. 캠퍼스에 복사가 있긴 하지만, 나는 조교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수업 자료를 직접 작성하고 직접 복사해야 한다. 나의 연구실이 없으므로, 나는 학생들과 만나기 위해 다른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야만 한다.

IV. 강의를 위한 지원이나 혜택의 미비

시간강사들은 안정적인 생활을 하며 경력을 발전시킬 기회를 좀처럼 얻을 수 없다. 시간강사들은 생계를 위해 너무 많은 수업을 하기 때문에, 연구를 하거나 출판을 하는 데 쓸 시간이 거의 없다. 대학들은 대학원생들이나 정규 교수들이 학술 회의에 참가할 때 여비를 지불하기도 하지만, 시간강사들은 개인적으로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응답자들은 수업을 최우선에 두면서도 오직 정규 교수가 되기 위해 출판을 하고, 학회에 참여하고, 개인의 전문성 발전에도 신경을 쓴다. 시간강사들은 행정 직원들의 지원, 필요한 교재, 학생들의 이메일 주소, 다른 교수들에게 제공되는 전문성 함양 과정, 그리고 동료들과의 단과 대학 미팅 참여를 기대하기 힘들다.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그들의 대학으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간강사들이 약간의 전문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비율이 11%이었고, 나머지 89%는 전문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동안 시간강사들은 대학으로부터 의료보험이나 퇴직금과 같은 근무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다. CAW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겨우 22.6%가 그들의 직장으로부터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다고 대답했다. eForum응답자들 중, 75%는 그들의 직장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직장에서 제공하는 혜택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만약 일정 수준이상의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면, 그들은 직장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또한 근무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간강사들은 강의를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한 응답자는 문제는 여러 대학을 다니며 강의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대학에서 제공하는 의료 보장을 받으려면 한 곳에서 15시간 이상 일해야 하는데, 본인이 3개의 대학에서 일하는 시간을 합하면 15시간이 넘지만,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물론 이 답변은 2014년 1월 1일 이전에 수집된 것이고 이제는 대부분은 Affordable Care Act(ACA)에 의해 만들어진 연방 의료보험을 받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ACA에 따르면, 정부가 정한

빈곤 수준의 400% 이하의 수입을 버는 개인이나 가정은 이제 새로운 보험 상품을 살 수 있고, 프리미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비용 보조를 받을 수도 있다. Wall Street Journal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시간강사들은 이제 연방 정부의 새로운 의료보험법에 따라, 2014년부터 보험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많은 시간강사들이 여러 수업과 직업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들은 수업 준비나 교육적 업무 (office hour)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한다. 시간강사들은 이 문제로 인해 학생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강의 직후 다른 수업을 위해 한 시간 이상의 거리를 운전해야 하는 교수에게 쉽게 접근할 수 없다. 시간강사의 98%가 그들 일정의 촉박함 때문에 학생들에게 더 나은 수업과 수업 외 시간을 제공할 기회를 잃고 있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시간강사들은 보통 office hour가 없거나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 만나기 어렵다. 시간강사에게 수업을 들은 학생들의 평가 결과에 대한 지난 10년간의 연구에 따르면, 정규 교수가 아닌 강사의 수업을 들은 들은 학생일수록, 낮은 졸업률, 낮은 성적, 그리고 전문대학에서 4년제 대학으로의 낮은 편입률을 보였다.

반대로 2013년 Northwestern 대학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정규 교수들보다 종신 계약을 하지 않은 교수들에게 더 많이 배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것은, Northwestern 대학의 시간강사들은 다른 대학의 강사들보다 더 나은 급여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강사는 단지 전임교원들보다 더 부족한 지원을 받고 근무환경이 더 열악할 뿐이다.” 이 말은 시간강사들과 다른 시간제 직원들은 전임교원들이 하는 만큼의 수업을 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한다는 뜻이다. 시간강사의 근로 조건과 학생들의 성취 사이의 관계는 위원회(Committee)와 정책 입안자들, 그리고 고등교육기관들이 진지하게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

V. 결론

eForum은 시간강사들의 삶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를 제공했다. ‘대학 교수’라는 직업은 중산층 직업이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에서 이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들 가족의 장기간 경제적 안정에 필요한 직업 안정성, 충분한 급여, 근무혜택을 받지 못하며 지낸다. 여전히 대부분의 시간강사들은 근로빈곤층(working poor)로 분류된다. 시간강사들의 사연은 줄어드는 중산층과 늘어나는 빈부격차를 보여주고도 한다. 일반적인 시간제 근로자를 위한 정책 해결책이 시간강사들이 직면한 경제적 위기를 도와주고 있다.

연구자들은 증가하는 시간강사의 비율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을 제시했다. 몇 명은 고등교육을 향한 정부의 지원 감소가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리고 노동 비용을 줄이도록 압박한 원인이라고 한다. 또 다른 연구자들은 대학이 다른 지출에 중점을 두고 학문 분야에 대한 지출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

로 대학에서 1987년부터 2005년까지 교수 인건비의 비율은 5% 감소했다. 대학의 예산 투명성 증가만이 현재 널리 퍼지고 있는 노동 유형(시간강사, 비정규 채용)의 필요성과 본질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이해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시간강사들이 존재하는 한,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는 끊이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 미국의 대학들은 앞에서 언급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수진들 사이에서 시간강사의 역할을 새로이 조명하자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대학들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증가하는 경쟁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임교원의 역할은 줄어들고, 반대로 시간강사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시간강사에 대한 선호도는 고용과 해고가 유연한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시장의 수요를 반영한다. 이러한 선호도는 정책 입안자들이 우려해야 하는 부분이며, 시간강사들의 생활수준과 미래에 고등교육을 받을 세대들을 위해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참고문헌]

House Committee on Education and the Workforce Democratic Staff(2014). 'The Just-in-Time Professor,' A Staff Report Summarizing eForum Responses on the Working Conditions of Contingent Faculty in Higher Education.

필자소개

이석열 | 남서울대학교 교수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동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와 박사를 취득하였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선임연구원, 한국교육행정학회 사무국장, 남서울대학교 교육개발센터 센터장, 미국 Carson-Newman Uni. 방문교수를 역임하였다. 현재 남서울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공저), 『교사교육론』(공저) 등이 있으며, '이명박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분석', '대학자체평가 보고서 모니터링 분석', '대학 학장의 직무수행 및 분산적 지도성 분석' 외 다수가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대학인사행정, 대학평가 등이다.